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아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중로 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 자 알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아름 선원 ●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551호

서기 2005년 11월 9일 (음력 10월 8일) 수요일

# 29

법공양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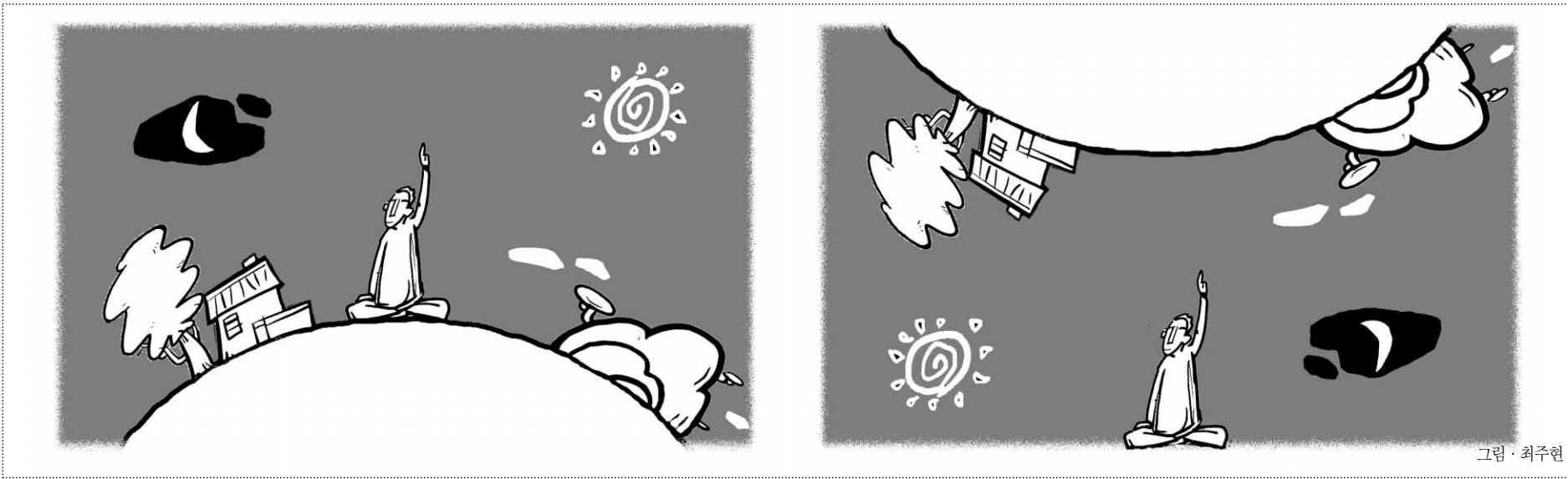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자기 분수를 잘 알고 모든 걸 관하면서 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 질문자1: 스님 뵈고 질문드린 지가 오래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명에 젖어서 스님 법문을 받들 때마다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는 제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웠는데 스님 법문을 대할 때마다 조금씩 그 무명이 벗겨지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또 놀라는 것은 제가 스님께 이런 말씀을 여쭙봐야겠다 했는데 이미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애들을 가르치면서 정확히 알고 점점을 받아야 되겠기에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고정점이 없이 왔다갔다 하면서 나뉘다 하는 것을 저희들 물리학에서 본다면 모든 물질들이 가장 기본적인 입자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입자들이 어떤 궤도를 돌고 있는데 그 궤도를, 그냥 고정된 궤도를 돌면 에너지가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궤도를 옮겼다 고정되지 않고 바꾸면, 스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대로 광역이라든가 전력·통신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어놓은 입시이라든가 또는 무명이라든가 아까 번뇌 망상에 의해서 그런 궤도를 제대로 운행할 수 하도록 한다면, 또 뭐 의학적으로 본다면 피가 순행을 멈추는 곳곳에 잘 해야 되는데 어떤 한 곳에 막

모든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주인공 그 자리는 저희들이 일부러 맞추지 않더라도 관(觀)하면 전체 자동으로 맞춰지는지요.

▲ 스님: 네, 자동이에요. 지금 로봇을 운행할 한 다든가, 또는 방송을 듣는다는가 통신을 한 다든가 어떠한 것을 작용하게끔 돌린다는가 이런다면은 뭔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런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 복잡한 것을 다 착착착착 그냥 일사천리로 해 나가는 거거든요. 자동적인 컴퓨터가 됩니다. 여러분의 머리 컴퓨터가 됩니다. 하하하. 그래서 주관적인 데서 모든 배출시키는 거와 모든 통신하는 거 일체, 뭐 지금 돌릴 컴퓨터에다가는 입력하는 것만 나오죠? 그러나 그것은 자동적으로 전체, 일체 광대무변한 모두가 전부 소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생각에 벌써 그냥 버튼이 눌러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눌러지는 걸 모르고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걸 생각이나 하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버튼을 눌렀다 다시 끄고, 버튼을 눌렀다 다시 끄고, 하하하. 아! 자꾸 이러니까 이거는 하려다 못하고, 하려다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게 한생각으로 조달이 되질 않죠.

그래서 이게 모두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자기 자동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러니 우리가 남을 이렇게 구제하자 하는데, 물질로 구제를 하는 거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발의 피죠! 그러니까 구제를 한다 하고들 모두 날뛰는데, 한생각이 잘못됐으면 그 악이 퍼져가지고 전부 웬만한 조그만 거는 다 그냥 뭉개져버려요. 못 살게 문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도와야 하느냐 하면, 마음을 도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정신계를 발전시키고 마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신계에 진출을 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적으로도 손실이 되는 거죠. 이걸 막대합니다. 정말, 반반이예요. 그런데 악이 더 많지 선이 더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의 종자가 천차만별로 종자 종류가 그냥 퍼지는 거죠.

▲ 질문자2(남): 스님께서서는 늘 주인공 큰 자리를 자기중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기둥은 그런 마음들이, 전체 에너지가 모여서 되는 자리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스님: 그러니까 잘나잘나 이렇게 전체 모이죠. 잘나아 전체 하나로 되기도 하고, 이걸 보이지 않는 데 이치입니다마는 보이는 데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전체 이렇게 한데 합쳐졌다 또 분리가 돼서 전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도 전부 합쳐지고, 왜 이런 게 있죠. 시장이나 장관이나 모두 일을 보는데 귀정적인 문제는 대통령에게로 전담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또 하달을 하듯이, 이거는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데다 댈 게 아니죠. 이거는 자동적입니다. 무슨 이거를 조달을 하느라고 들고 다니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컴퓨터로 착착착착 나오듯이 그냥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러서 컴퓨터를 탁 누르면 어느 동네, 또 컴퓨터를 탁 누르면 어떤 사람이 행하고 온 거, 과거에 서부터 어디서부터 나왔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행했고 그것이 다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도리를 모르는데, 내가 만약에 '아이구! 당신은 어디로부터 어떻게 나와서 얼마 안 되었 죽겠고 살겠고.' 이런 말을 하면 그건 도가 아니더라는 얘깁니다. 그거를 이 마음으로써, 자기 한생각으로써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자신이 실현을 해봐야 이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처원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움직여질 수 있는 거니까 조그만 거라도 큰 거라도 서슴지 말고 무심지 않게 생각하고 패기 있게 물러서지 말고, 그대로 하늘이 무너진다, 지금 여기 앉았는데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서 다 죽게 된다 하더라도 빙긋이 웃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한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귀중한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손가락 하나로 받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손가락 이 것도, 즉 말하자면 방편이지, 손가락이라는 건 가리키는 방편이지, 진짜 하늘을 받을 수 있는 손가락 하나는 그거는 말로 형상이 되고 말로 이름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얘깁니다.

▲ 질문자2(남): 조금 전에도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마하는 저는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계속 하나하나 사업이 여의지 못해가지고 공부하고 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가르침과 스님께서 마음을 좀 내주시면 싶어서 제가 스님 앞에 왔습니다. 지금 심정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공부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마는 공부는 계속 하고 있지만은 주인공 힘이 약했는지 답답한 마음일 뿐입니다.

▲ 스님: 주인공의 힘이 약한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약한 거죠. 왜 주인공 맞을 합니까?

▲ 질문자2(남):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 스님: 이게 보세요. 일체 만법을 스스로서 굴린다 그러면 어떤 거는 우리들의 법이 아니고 어떤 거는 우리들의 법이겠습니까? 다 법이지. 그런데 하물며 그 공장을 누가 합니까? 막에서 하죠? 막에서 하는데 막의 자체가 바로 심부름꾼에, 그 공장의 심부름꾼이지 진짜 주인이 아니예요. 진짜 주인은 당신의 몸통이 속에 모든 생명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가운데에 근본 선장입니다. 선장이 바로 그 공장을 하고 다스리고, 또 그 컴퓨터에서 당신을 운행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갑니까?

▲ 질문자2(남):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 하늘이 무너져서 다 죽게 된다 하더라도 빙긋이 웃을 정도가 되어야

▲ 스님: 그런데요, 그렇게 운행을 시키는 그 자가 주인이지 당신의 몸통이 주인이 아니예요.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의 육성일 뿐이지 자기가 혼자서 그냥 자기가 아니죠. 지금 막의 몸통이 속에도 의식들이, 모습들이,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더라도 지금 그 둘 한 컵 마신다 하더라도 혼자 마시는 게 아니고 더불어 같이 마시는 거기 때문에 공식(供食)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공장도 즉 말하자면 주인으로부터 또는 막의 그 공장장으로부터 모든 직원들이 같이 지금 동일하게, 높고 낮고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거니까 바로 주인공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하는 거지. 나는 더불어 같이 심부름을 해주고 있구나라' 하는 거를 느껴야죠. 그래야 진실하게 그걸 알 수 있게끔 되죠.

▲ 질문자2(남): 제가 처음에 표현을 잘못 드려서 그러는데요...

▲ 스님: 아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표현이...

▲ 질문자2(남): 단지 그저 스님께서서 마음 한번 내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대중 웃음)

▲ 스님: 이제 말입니다. 컴퓨터에서 책정을 하려면 이 컴퓨터에, 왜 편자가 서류를 침착하게 다 챙겨보고 판정을 내리듯이, 컴퓨터에서 거기가 말

겨서 진정으로 버튼이 눌러졌다면, 그냥 전부 일체가 다 한데 합쳐집니다. 그냥 딱 그냥. 뭐 거칠 것이 없이 쪽 모여서 그냥 거기서 책정을 금방 내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것 없죠. 사실은 진실하면 버튼이 눌러진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요. 크고 작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주인은 맥 주인공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죠. 하하하. 뭐 가지 각색의 이름을 다 짓어다데고선 좀 알려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아이구 참! 나도 참.

▲ 질문자3(여): 스님, 먼저 주인공에 관하는 공부를 가르쳐주셔서 감사의 큰절 올리려고 포항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법을 만난 저는 이제 겨우 첫발을 지낸 촛대기 신도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었고, 10년 동안 열심히 생활해 1억 2천만원이라는 돈을 모아 4년 전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2억 5천만 원짜리 상가 건물을 한 채 샀습니다. 건물 전체를 7천만 원에 전세를 주고 모자라는 돈은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금도 이자가 월 8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건물 밑에 조립식 가건물을 지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사업하시는 행님의 은행 보증을 썼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1억 8천만 원이라는 빚이 남편 앞으로 돌아오고 건물도 세 곳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고생하여 그 집에 들어가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아픔이지만 '주인공! 그대 잘하려고 하다 가 그런 거잖아!' 하고 관하면서 그 행님이 믿는 생각은 들지 않고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편과 의는 끝에 행님을 찾아가, 우리 집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집문서 내어드릴 테니 유용하게 쓰시라고 했더니, 행님도 좋아하셨고 저희들도 주인공에 모두 맡기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주인공! 보증 서게 한 것도 너니까, 서로 가장 정게 손해 보는 쪽으로 빨리 이 일을 처리해. 주인공 너만이 이 일이 빨리 해결하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하고 말기도 또 관하고 열심히 관하고 있습니다. 이 법 들었으면 병이 나도 단번히 낫을 테고 어쩔 행님과 등 돌리고 살지도 몰라요. 총격이 너무 컸거든요. 편리하고 좋은 마음 내게 하는 공부 가르쳐주신 큰스님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지역에 계신 스님께도 거듭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 스님: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병도 안 나니 좋고, 하하하, 버렸으니 뭐 편안할 거고 먹고 사는

## 조그만 거든 큰 거든 서슴지 말고 패기 있게 물러서지 말고

히게 되면 그걸 아프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번뇌 망상 또는 업식이 있을 때에 돌아가는 운행을 못하게 한 다든가 해서 사람이 고통을 받고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진한다든가 잠선한다든가, 또는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막히고 제대로 운행을 못하는 것들을 한쪽으로 돌게 만드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이지 않은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힘도 그 힘이 같은 방향으로 또는 힘이 모여져야 큰 힘이 나오지, 그 힘이 뒤죽박죽이 퍼져서 여러 군데로 같이 방해할 하면 큰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상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수행이나 정진은 그런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큰 힘이 나오도록 돌리는 것이 정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스님께서서 자동 컴퓨터를 늘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분하고 통신을 할 때는 반드시 다이얼을 돌린다는가 또는 방송을 들을 때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같은 주파수를 맞춰서 우리가 그 방송을 듣게 되는데, 주인공 자리라 하면은 자동으로 그것이 주파수가 조절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저희들이 일부러, 지금 현상적으로 본다면 KBS 방송을 들으려면 KBS 채널을 맞춰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진행하는 컴퓨터를 못 믿으면 누굴 믿느냐는 얘깁니다. 네? 세상에 자기 뿌리를 자기가 못 믿는다면 누굴 믿느냐 얘기에요.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허공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름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형상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체제불의 마음' 노래를 지은 것도, 하도 답답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그냥 노래가 되어 버렸습니마는, 그래서 부처님 형상도 내 형상과 돌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도 돌이 아니요. 부처님 법도 돌이 아니라, 이러니 그냥 생활이 그대로 법이요 생활이 그냥 부처님 생활이지 어디 떤 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라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입자로 배출이 됐다가 또 그 입자가 배출이 돼가지고 또 수 바퀴를 돌아서 다시 화(化)해서 크게 우주를 형성시키고, 우주를 형성시키고 원자가 되고, 또 그냥 그렇게 배출이 되고 다시 들어와서 다시 또 끌어들이어서 또 크게 배출을 시켜서, 또 나누어서 배출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거 어마어마합니다. 알고 보시면, 우주의 섭리나 인간의 두뇌의 섭리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생각했다면 악의 종자가 많이 배출이 되고, 선을 한다면 선의 종자가 그냥 무수히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 한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30면으로 계속

